

전북대, 동물 빅데이터 사업 '첫 발'

산학협력단, 전문기업 아이트와 기술·인력 등 공유 협약 소·돼지 등 홍채 인식, 얼굴·형태·이상행동 확인 가능

전북대학교가 소나 돼지 등 동물의 홍채나 안면을 인식해 신원 증명에서부터 이상행동, 건강상태까지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물 대상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은 최근 관련 분야 전문 기업인 (주)아이트(대표 우광제)와 동물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동물 대상 홍채 인식과 얼굴 형태, 이상행동 등을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신원 증명과 품종·특성 구분, 이상행동, 건강상태 확인 등을 할 수 있어 품종이 양육과 번식,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동물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접촉식 원거리 홍채인식 기술과 객체인식 기술, 이상 행동징후 및 행동양상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아이트의 기술과 전북대 학술역량이 결합해 동물 빅데이터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산업현장 기술 지원과 실무협업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상호 간 기술, 시설, 장비, 인력도 활용하게 된다.

조재영 단장은 "전북대의 동물자원 학술·연구역량과 아이트의 홍채, 복합인식 인증 등 기술력이 만나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효율적 동물자원 관리와 최근 각광받는 스마트팜 등 21세기 농축산 분야의 새 지평을 열 신기술"이라고 말했다.

우광제 대표는 "아이트의 원거리 홍채인식기술은 반려동물, 인체, 축산물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주)아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팀스(TIPS)와 신용보증기금 40 스타트업 사업에 선정된 AI 기술기반 벤처기업이다. /정은성 기자

도내 학부모회 발전방안 모색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서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에 앞장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을 도내 14개 시·군 19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부모회 컨설팅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교구성원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총회·임원회의·비대면회의 진행방안 안내 ▲200M을 활용한 비대면회의 현장실습 ▲미집행 예산 사용 및 정산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위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직접 컨설턴트로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산무녀초등학교 이재복 회장, 고산고등학교 한대식 총무, 전주새연초등학교 이영은 회장, 군산한들고등학교 문국호 회장, 전주화정초등학교 김영근 총무 등이 참여한다.

실제 학부모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진들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별 소품과 나눔을 통해 컨설팅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 운영이나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부모회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글로벌연수사업

3년 간, 필리핀 오지서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에서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ODA-글로벌연수사업은 박효식 교수(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3년간, 필리핀 소외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준비를 위해 진행되는 전문인력양성 사업이다.

필리핀 소외지역 내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전문인력양성, 마을 단위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유지보수 역량 강화 및 필리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적·기술적 운영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산업기술개발연구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는 전주비전대학교 초청 연수로 계획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해 진행했다.

한국과 필리핀 간 동시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ODA, Action Plan 작성법, Country Report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특성,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 태양광 발전소 입지 환경 분석 기술,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필리핀 오지용 태양광 발전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졌다.

박효식 교수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 전수를 통한 관련 기업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단위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지속가능한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필리핀 소외지역 주민들의 전력수급 개선을 통한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에서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했다.

전주대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 다수 입상

전주대 부동산정보학과 3개팀이 '새만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장려상 2팀)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새만금의 최상위·종합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만금 사업 1단계 완료로 기점으로, 10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2단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개발방안 및 정책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박예진 학생, 김진 경임 교수 법학과 국토정보융합전공 박예민 학생이 제시한 '새만금 신재생 복합테마파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예진 학생은 새만금 신재생 교수팀은 새만금의 36.8km² 부지를 활용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캠프장, 소풍물 등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는데, 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로 운영되며, 테마파크 내 모든 시설을 지나는 무빙워크 설치, 바닷속 캠프장 운영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장려상에도 부동산국토정보학과 2개팀이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정지혜, 김수진, 이서영 학생, 전주대 부동산학 황선덕 박사팀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김세연, 한서현 학생,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현재호 학생팀이 각각 '오션뷰 골프장 및 새만금타워 전망대 등 관광·레저용지 조성방안'과 '휴락 아쿠아리움'을 제안했다.

특히 정지혜, 김수진 이서영 학생 및 황선덕 박사팀은 입지 조건에 특화된 여러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 연령을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관심을 받았다. 김세연, 한서현 현재호 학생팀은 해저 공간을 활용한 VR 체험 시설, 테라피 공간 호텔 등을 제안하며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유경민 교수, 옥스퍼드대 번역학 초청 강의

전주대학교 유경민 교수(국어교육과)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번역학 강좌에 초청돼 10월 29일과 11월 5일 두 차례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는 유 교수의 책과 논문을 번역학 강의를 참조하고 있는데, 직접 저자의 강의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서 특별강의가 마련됐다.

유 교수는 지난달 29일 11월 5일 두 차례 온라인 강의를 펼쳤고, 오는 5일에는 '한국어 성경의 역사(The History of Korean Bible)'를 강의한다.

지구 반대편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유 교수의 연구 실적을 조명할 이유는 언어 자료 연구와 분석을 통해 얻은 탁월하고 새로운 성과를 때문이다. 많은 국어학·국어사 전공자들이 불경과 유학서 연구에 집중할 때 유 교수



는 번역 성경에 주목했다. 조선 말 성경 번역 작업은 국가적 억압과 배척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았지만 캐나다 YMCA의 지원으로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된 제임스 스카쓰 케일(James Scarth Gale)은 한영, 영한 양방향의 각종 번역물과 함께 新譯新編(新編全書) (1925년)을 출간했다. 그 시기 가장 한국어다운 문체로 번역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역본이 되지 못한 개인역본이라는 이유로 한국어 성경의 그림자가 된 국한혼용문 성경이다.

그런데 유 교수는 사상적 편견 없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출간된 한국어 성경의 역사를 정리하고 텍스트를 전산화해 대비하며 성경 번역문의 문화적 의미와 국어사의 문체론적 영향까지 밝혀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온라인 융합인재교육 수업 지원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STEAM(융합인재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도내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STEAM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다양한 수업 콘텐츠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온라인 STEAM 수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사 11명으로 STEAM 수업지원단을 꾸려 수업지도안 및 수업안내 영상을 제작, 공유했다. 수업 지도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미래인재과부서자료실(650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업안내 영상은 관련 공문을 통해 각 수업의 안내를 살펴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d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